



한국투자증권

TRUE ELS 10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4일까지 홍콩 H(HSCEI),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1456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12·18개월), 80%(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5.4%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6.2%(연 5.4%)의 수익이 지급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연 7% ELS 등 4종 모집

하나금융투자는 15일까지 리자드 상환기회를 추가해 총 3번의 리자드 상환 기회가 주어질 멀티 리자드 ELS 등 파생 결합상품 총 4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미국지수(S&P50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341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원유(WTI)와 두 가지 지수(HSCEI·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7.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3227회'도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온라인전용 ELS 조기상환

KB증권은 '온라인전용 ELS 1호(KB able ELS 제708호)'가 최초 조기상환평가일인 11일 세전 연수익률 15%, 세전 실현수익률 3.75%로 조기상환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전용 ELS'는 주식만 투자하는 고객 비중이 높은 디지털고객에게 자산관리 상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손실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조기상환이 확정된 '온라인전용 ELS 1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조기상환 90% 원금지급 부스터형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바이오 등 코스닥 진입 쉽게... 업종별 상장심사

한국거래소, 주요 추진사업 발표 "미래전략TF팀 설치 등 조직개편 미래코스닥 대표기업 발굴·지원"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바이오와 핀테크 등 다양한 업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업종별 상장 심사·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9 코스닥본부 중점 추진사업'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최근 산업 동향을 반영해 바이오와 4차 산업, 모바일 게임 등 기존에 없던 업종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을 위해 각 산업의 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뉴시스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의 상장심사 시 임상진행 정도, 개발 약품의 종류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의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방안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중 상장심사에 적용하고 2019년 말까지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관사인 투자금융(IB)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을 조기 발굴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코스닥 대표기업 발굴과 상장유치도 주력한다. 코스닥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가총액 상위 잠재 유니콘 기업 등 예비 기업군을 선정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코스닥본부 내에 오는 18일부로 ▲미래전략TF(코스닥발전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협력) ▲혁신성장

지원부(성장기업부와 상장유치실을 통합해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코스닥 상장 컨설팅까지 수행) ▲상장관리(상장·퇴출기업 대응) 등 세개의 조직이 설치된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부터 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금의 상대로 한 투자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및 기관 비중이 현재 14%대인데 향후 25% 정도로 높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상장을 촉진하는 한편 시장의 질을 관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이 글로벌 혁신 기술주 시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불법사채 353% 폭탄이자, 채무조정엔 환급도 가능

대부금융협회, 작년 1762건 분석 264건 재조정, 초과 3천만원 반환

#.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을 찾아보다 '대출나라'라는 곳을 알게 됐다.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만난 대출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첫 거래에서 30만원을 빌려줄테니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빌려 주겠다"고 했다. 그는 급한 마음에 30만원을 대출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5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대출업자에게서는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으니 첫 번째처럼 30만원 밖에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0만원을 다시 대출받은 그는 사정이 힘들어져 매주 20만원씩의 이자만 내고 있다. A씨는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며 협박을 한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대출업자 이름이나 주소, 상호조차 몰라 너무 힘이 든다"고 호소했다.

<2018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구분	거래건수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연환산 평균금리	
사법당국 의뢰	970건	3,923만원	110일	228%	
피해자 의뢰	채무조정요청	608건	468만원	70일	1286%
	이자율계산요청	184건	4,564만원	240일	596%
	소계	792건	1,404만원	85일	780%
합계	1,762건	2,791만원	96일	353%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총액 / 대부원금총액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금리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일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선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썩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한 후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

공사추진능력·품질인정 현대건설 '감사패' 받아

헬리오시티 조합

현대건설이 최근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공사추진능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준공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현대건설이 기한내 헬리오시티 준공 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조합의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헬리오시티 사업을 수행하며 비주관 시공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조합과 업무를 함께하고, 인허가관청과 협조해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운영능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현대건설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는 설립인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조합사무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김태균 상무, 헬리오시티 주영열 조합장, 현대건설 김경호 부장, 이문희 부장. /현대건설

부터 준공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다"며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김태균 상무는 "모든 세대의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사업기간 15년, 단지 규모도 9510가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주공사), 삼성물산 등 3곳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대부업체 연체 이자율 약정이자율 +3% 제한

정부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연체가산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이 연 3%로 규정된다. 연체가산율은 대부업약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의 차이를 말한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취약 연체채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채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